

Reject-Reset-Rebet

하 창 식(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내 경우엔 대학원생들과 함께 열심히 실험한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해서 학술지에 투고하고,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고 난 뒤, 인쇄교정지(page proof)를 받아들 때가 가장 학자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된다. 정작 내 논문이 실린 학술지를 볼 때나, 별쇄본(reprints)을 받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다. 그런데, 논문을 투고한 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달아 한, 두 문장으로 된 심사평(comments)과 함께 게재거부(reject) 통고를 받은 그 날의 기분은 하루종일 '구름 낀' 그 자체이다. 명백한 이유로, 우리 논문에 중대한 논리적 오류가 있거나 결과 해석상에 부족함이 많다면 흔쾌히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게재 거부를 통고 받을 땐 불쾌감을 지울 수가 없다. 가장 먼저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은 힘들게 실험한 뒤 괜찮다고 판단하여 투고한 우리 논문에 대해 같은 동료학자로서 남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하고도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생각은 비단 학술논문 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계획서나 결과물 심사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SCI류에 속하는 외국학술지의 경우에 우리를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심사평의 하나는 영어가 형편없으니, 원어민의 교정을 받아 수정하라(..... poor English and should be read by a native or near-native speaker)는 내용이다.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이거나 영국인이 아닌 이상 어떻게 영어를 그들처럼 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심사평은 순전히 어떤 심사자를 만나는가 하는 운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가령 미국에서 발행하는 어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했다가, 형편없는 영어라는 심사평에 충격을 받아, 영국에서 발행하는 다른 학술지에 글자 한 자 안 고치고 투고했다니, 훌륭한 영어(well-written English)라는 심사평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럴 때 내가 느끼는 당혹감이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참으로 내가 쓴 영어가 훌륭한 것인지 형편없는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다. 국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했을 때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땐 그 당혹감이 훨씬 크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논문 필자들의 1년 동안의 잘 된 농사에 대해 흠탕물을 뒤집어 씌울 때의 기분은 더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사 대상인 논문에 많은 하자가 있다면, 정말로 동료 연구자들의 논문 수준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선의의 가르침을 담은 심사평으로 동료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심사평이 필요할 것이다.

하여튼,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거부 통고를 받았을 때 상당한 당혹감과 함께 불쾌감을 느끼지만, 그 불쾌감에 젖어 주저 앉으면 발전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게재거부(reject) 통고를 받으면, 불쾌한 기분을 훌훌 털어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reset) 논문에서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잘 못 된게 없더라도, 무엇이 심사자라고 하는 제 3의 독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주지 못하여 그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마침내 게재거부라는 쓴 약을 쓰게끔 만들었는지 논문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읽고 새로 베팅(rebet)을 해야 학문적으로 발전이 있는 것이다. 새로 작성된 이 논문을 어디에 투고할까? 새로 작성된 이 논문은 지난 논문에 비해 실험결과들에 대해 제 3의 독자에 대해 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영어는 형편없는 것일까? 아니면 적어도, 영어에 대한 심사평이 나오지 않을 만큼 다듬어진 것일까? 등등 다시 한번 더 베팅하면서 다시 투고를 하게 되고, 다

행히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나 바로 게재(acceptable in the present form) 통고를 받은 다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인쇄교정지를 받아들 때 그 때의 기분은 참으로 기쁜 것이다.

학자들의 기쁨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이다.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술지에 발표되어 다른 사람들이 읽어 준다고 생각할 때 행복한 것이다. 요즈음 자주 연구자들의 업적을 제창하는 잣대로 이용되는 SCI 논문 편수나 인용횟수 등이 많으면 그 기쁨 또한 더 크겠지만,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떠랴? 내가 발표한 이 논문에 진정한 나의 땀이 서려있고 나의 눈물이 배겨 있다면 최선을 다했다는 그 자체로서 족하지 않는가?

SCI 논문에 대한 집착, 즉 SCI 신드롬이 이상과열로 존재하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의 풍토 덕분에 우리 나라의 해외학술지 논문 편수나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담은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논문 그 자체보다는 그 논문 한편을 위해 실험실에서 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연구자들의 노력에 대해 더 많은 격려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나, 연구시설이 잘 갖춰진 KAIST나 포항공대, 서울대 등에서 발표된 SCI 논문 한 편 못지 않게, 열악한 여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실험을 해야 하는 지방의 작은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발표한 우리 나라 학술지 게재·논문에 대해서도 뜨거운 격려의 박수가 있어야 하며, 동일한 평가가 주어져야 한다. 오히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양은 연구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논문에 담긴 땀과 눈물보다 더욱 많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의 경우에 있어,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교수 연구업적평가는 상대적으로 교육을 소홀하게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연구소는 연구소답게 대학은 대학답게, 산업체는 산업체답게 연구활동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즈음 보면 연구소와 대학의 구분이 없어진 듯하다. 연구와 교육은 물론 대학의 중요기능의 두 축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연구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는 대학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은 학술적인 가치와는 별도로 그에 상응하는 노력에 대한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과학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 등을 통해 SRC, ERC, BK21 등 요즈음 자꾸 집단화, 대형화되어 가는 연구비 지원형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개인 연구비 지원을 줄이고 우수 연구집단에 대해 연구비를 선택해서 집중 지원한다면, 연구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수 연구집단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대형지원이 이루어져 연구가치를 더욱 높인다는 발상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연구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한 국가에서, 인프라를 채 구축하지 못한 대학의 우수 개인 연구자가 받는 불이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들이 이런 국가적 과학기술정책에서 거부되거나 소홀히 되어(reject),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reset) 자체를 꺾게 만드는 정책 방향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도전(rebet)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 터 광 고

컴터는 회원의 수필기사를 다루어 기술지 기사를 정독하시는 분들의 정신적 휴식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한 창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수필을 실었으면 합니다. 많은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